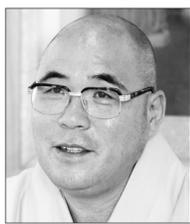


■ 시사주제 / 승가복지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의지와 실천 문제...올해 법제화해야”

역대 종단 집행부의 숙원인 승가 복지는 조계종 제33대 집행부의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당초 2011년도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과제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속도를 내고 있다. 총무원 총무부가 지난 23일 승가복지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중요 정책임을 부각시키고,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총무부는 이날 제1기 토론회를 열고, 한편, 이른 시일 내에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해 승가복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제24교구 본사주지 법만스님은 이날 토론회에서 ‘승려노후수행마을’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의견이다. <무순>



보각스님



법안스님



법만스님



선문스님



정범스님



강설스님



지완스님



지건스님



성산스님

들이 병든 후에 머물며 치료하는 것만 복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 사회복지재단이 효과적

정범스님(중앙총회의원) = 현재 종단법에 따르면 승가복지는 사회복지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재단의 첫 번째 임무가 승려복지이기도 하다. 승려복지재단을 만들어 시행할 경우 인력과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재단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승가복지는 종단에서 시행하는 포살결계에 참여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스님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이에 대해 종단은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재원 확보는 우선 총무원이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하는 걸일이 필요하다. 총무원이 예산을 포함한 안을 내놓은 후에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다.

• 시급한 것은 의료복지

강설스님(전국선원수좌회) = 스님들 가운데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선방 수좌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승가복지에서 시급한 것은 의료복지이다. 다른 종교는 의료비의 대부분을 책임진다. 그런데 우리 종단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스님들이 수술이나 큰 병을 앓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크다.

• 제도화 논의 시의적절

지완스님(전국비구니회) = 의료보험까지 개인이 감수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스님들이 있다.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승가복지를 시행해야겠지만, 당장 의료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스님들을 위한 선택적 복지도 필요하다. 승가복지 제도화에 대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 ‘용두사미’ 안됐으면...

지건스님(논산 법계사 주지) = (승가복지는) 시작한 사람이 희생하지 않고는 못한다. 스님들의 의견을 모아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승가복지에 대한 논의가)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리=이성수 기자 sooliee@ibulgyo.com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유인촌 장관 “걱정 끼쳐 죄송”

조계종 방문 ... 템플스테이 관련 보도 해명

대구지역 목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템플스테이 사업 재조정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사진> 유인촌 장관은 지난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면담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유인촌 장관은 총무원장 스님에게 “요즘 (템플스테이 사업 재조정) 기사가 나서 걱정과 심려를 너무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총무원장 스님 예방에 앞서 유 장관은 취재진에게도 “총무원장 스님이 할 일이 많으신데, 신문에 영문도 모르는 기사(템플스

테이 사업 재조정 관련)가 나와 걱정을 끼쳐드렸다”면서 “마음이 죄송스럽다. 신문기사는 (보도된) 내용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인촌 장관의 사과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은 아무 답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면담이 끝난 후 “유인촌 장관이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고, ‘국민일보가 앞뒤를 자르고 보도해 오해가 생겼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이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오해가 없도록 언행에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성수 기자 sooliee@ibulgyo.com

• 모든 재원 종단 총당 어려워

보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 = (국가의) 노인 관련법에는 수혜대상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물론 65세 이전에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가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종단 자체에서 모두 책임지기는 어렵다. 합법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법률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종단에서 추진하는 승가복지의 수혜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 수행과 복지 둘이 아니다

법안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 승가복지는 역대 총무원장의 공약일 만큼 중요한 정책이다. 총무원이 구성한 승가복지 TFT팀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구체적인 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승가복지 시행은 의지와 실천의 문제이다. 속도를 내서 올해 안에 (중앙총회에서) 법제화해야 한다. 65세 이상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주무부처는 중앙에서 맡으며, 교구는 지침에 따라 관리하는 게 맞다. 수행과 복지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 요양적 시설은 재검토해야 한다. 토론회를 다시 개최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 선원은 수행, 별채는 복지

성산스님(전국선원수좌회) = 승가복지 관련 업무는 종단과 교구본사에 복지부를 신설해 추진해야 한다. 수혜대상은 출가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승남이 20년 이상 연령 65세 이상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실 스님들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출가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수행환경이 조성되고 노스님이 존중받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선원은 수행기능을 하고, 별채는 복지기능을 겸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러한 사람은 종단에서 분담금 등을 감면해 줘야 한다.

• 요양원 아닌 수행공간이어야

선문스님(중앙총회의원) = 주거, 의료, 수행연금 등의 승가복지를 총체적으로 집행하려면 임무가 상당히 많다. (중앙총회 특위에서 제안한) 승려복지재단 설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회복지재단에서 담당하는 것도 방안이다. 본사에서 업무를 맡으면, 자칫 사찰의 상황에 따라 승가복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의료 부분은 모두 혜택을 받아야 하고, 주거와 연금도 나이를 정해 실시해야 한다. 승가복지는 요양원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스님들이 머물면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스님

수혜대상 65세이상 적절...심도있는 논의 재원확보 방안 ‘정부관련 법률 검토’ 필요

‘반쪽 기도 세리머니’ 보는 고통

현장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이겨내며 지난 23일 새벽 서울광장의 대형 스크린과 각 가정의 TV앞에서 응원했고 마침내 16강 진출이라는 큰 기쁨을 나눴다. 하지만 그 기쁨에 들떠있는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 역전골을 넣은 박주영 선수가 기도 세리머니를 한데 이어 게임 종료 후 개신교 선수들이 단체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영표 선수는 퇴장하면서까지 ‘주여’를 외치는 장면을 지켜봐왔기 때문이다. 박주영 선수가 골을 넣은 뒤 펼쳐는 기도 세리머니는 이제 박 선수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정도로 기도 세리머니에 집착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기도 세리머니를 지켜보는 불자, 무종교인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신교인들은 기도 세리머니는 개인

의 종교 자유이자 개인의 사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너희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출전한 공인이다. 공식 석상에서 개인적인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한 처사임은 자명할 일이다. 종교평화위원회가 기도 세리머니를 자제시키달라고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에 공식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불자대상 수상자인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은 뒤 합장 세리머니나 참선 세리머니를 한다면 너희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주장한 이들의 마음은 진정 편할 수 있을까. 축구의 꽃은 단연 골(Goal)이다. 이제 16강을 넘어 8강, 4강으로 진격해야 한다. 개신교인에게만 환호받는 ‘반쪽짜리’ 세리머니가 아닌 활짝 핀 꽃처럼 모든 이들이 활짝 웃으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진정한 ‘골 세리머니’를 담은 경기에서 보고 싶다.

불기2554(2010)년

연수교육 시행안내

- 승려법 제26조 및 교육법 109조에 의거하여 구축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스님들께서는 많은 참석바랍니다.
- 종단의 연수교육이 그 동안 특정한 소임에 계셨던 스님들을 위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구축계를 받은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교육원은 구축계를 수지하신 모든 스님들이 재교육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양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스님들께서 3급, 2급,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본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권역별로 진행되었던 본말사주지연수는 연수교육으로 대체 시행하오니 말사 주지사님들께서는 개설된 강좌 중 매년 반드시 1개 강좌 이상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다 음

- 교육대상 : ① 구축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 ② 말사주지사님
- 교육형태 및 기간 : ① 통학연수교육 - 6주(주 1회 2~3시간 기준)
② 숙박연수교육 - 2박3일
- 교육장소 : ① 통학연수교육 -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강의실(조계사 앞)
② 숙박연수교육 -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충남 공주 마곡사 옆)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4번지, 041-841-5050)
- 신청방법
① 말사 주지사님께서는 7월30일까지 소속 교구본사로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② 직할교구 말사주지사님 및 그 외 스님들께서는 교육원으로 직접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③ 전화 신청시에는 02-2011-1807~9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④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팩스신청(02-732-4926)도 가능합니다.
⑤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 교육비 : 강좌별 기간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강좌안내에 별도표시)
- 교육비 납부방법 : 계좌이체(농협 053-17-006226) (재)대한불교조계종 (온라인입금 시 본인 실명(법명, 사찰명) 사용 / 예) 홍길동(광명, 자비사)
- 문의처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우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전화) 02-2011-1807~9 팩스) 02-732-4926

* 본 강좌의 내용 및 교수진, 일정, 교육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강좌들은 본원에서 인증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를 이수하셔도 본인의 연수교육이수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강좌명	기간	시행기관	문의처
월드인문동본부	10월~12월	불교여성개발원	02-722-2101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과정	1년 과정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	02-929-5004
동국대 사찰경영 전문회고과정	1년 과정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02-2260-8887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불교교양과정	상설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02-2260-3728
동국대(경주) 불교문화대학원 지도자과정	1년~2년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054-770-2392
대한불교교사대학	1년 과정	사단법인 동원	051-864-4569
마음정김에 근거한 스트레스감소 프로그램	10월~12월	나무여성 인권상담소	02-732-1367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과정	9월~11월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02-738-7860
기초불교영어강좌	상설	국제포교사회	02-722-2206
불교호스피스자원봉사교육	11월 개강 예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02-723-5101